

洛東江下流域 加耶古墳의 檢討 (I)

——豎穴式長方形石室墓——

林 孝 澤

A Study on the “Suhyulsik-Jangbanghyung-Sucksilmyo” of
the Kaya on the lower Nakdong River

Hyo-Taek Im

〈目 次〉

Abstract
I. 序 言
II. 遺蹟別 遺構의 內容과 特徵

III. 綜合的 考察
IV. 結 言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Suhyulsik-Jangbanghyung-Sucksilmyo” (豎穴式長方形石室墓) of the Kaya on the lower Nakdong river. The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 1) The tombs are located at hillock. They are formed a large group. Generally they are northward and eastward.
- 2) There are three types of the stony chamber. One of them is made of some flagstones. Another is made of some flagstones with a large number of fragmental stones. The other is made of a large number of fragmental stones only.
- 3) Generally, one tomb was for one corpse, and the corpse were laid stretched with face upward. The corpse were laid in the wooden coffin or without them. The heads of the corpse are eastward, southward and northward.
- 4) The burial traditions of the Kaya period are as follows: The pit-grave is in the first period. The “Suhyulsik-Jangbanghyung-Sucksilmyo” (豎穴式長方形石室墓) and the jar-coffin are in the second period. The “Banghyung-Sucksilmyo” (方形石室墓), the “Hyoenggusik-Sucksilmyo” (橫口式石室墓) and the “Hyoenghyulsik-Sucksilmyo” (橫穴式石室墓) are in the last period.

I. 序 言

洛東江 下流域一帶 加耶墓制에 대한 종래의 認識은 크게 보아 竪穴式長方形石室墓와 橫穴式石室墓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즉 竪穴式長方形石室墓는 이른 時期 加耶古墳의 主流를 이루는 墓制로, 橫穴式石室墓는 늦은 時期의 墓制로 알려졌은 정도의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최근 이 地域에 있어서 일련의 발굴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加耶古墳研究를 위한 많은 새로운 자료의 증가를 가져다 주었다. 여러 종류의 많은 새로운 자료 가운데 특히 墓制에 있어서는 土壙墓, 甕棺墓, 方形石室墓, 橫穴式石室墓 등 여러 새로운 墓制가 확인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지역 加耶古墳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새로운 자료를 중심으로 綜合的인 比較研究가 요청되고 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現狀에 주목하여 加耶古墳에 대한 綜合적인 연구를 위한 일환으로 竪穴式長方形石室墓에 대한 종래의 성과를 검토하여 加耶墓制로서의 위치를 밝혀보고자 한다. 즉 竪穴式長方形石室墓라는 그 構造의 특징과 그것에 따른 墓制의 內容 그리고 새로이 확인된 諸種의 古墳과의 비교를 통한 編年的 위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 있어서 竪穴式長方形石室墓의 加耶古墳 유적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유적은 발굴조사가 아닌 地表調査 등에 의하여 알려진 유적이므로 그 構造의 특징 등 학술적 연구를 위한 내용을 알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洛東江下流域 일대에서 조사된 竪穴式長方形石室墓 중에서 학술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그 報告書 등이 刊行된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II. 遺蹟別 遺構의 內容과 特徵

가. 五倫臺古墳

古墳의 위치는 釜山市 東萊區 仙洞이다. 이곳은 水源池 확장 공사전 원래 이곳에 있던 下峴부락의 뒷동산, 南北약 200m, 東西 약 500m의 細長한 丘陵의 稜線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당시 이 古墳群의 現狀은 水沒되었다가 다시 露出되었기 때문에 封土도 깎이고 石室의 遺構도 일부 崩壞되어 壁石이나 副葬遺物이 缺實된 것도 많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다.¹⁾ 이곳에서 조사된 古墳은 竪穴式長方形石室墓 28基, 甕棺墓 및 支石墓 각 1基이다. 그리고 28基의 石室墓중에 主·副室을 갖춘 墓는 1基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主室 하나만 있는 單獨墓이다. 그리하여 五倫臺古墳群은 竪穴式長方形石室墓가 그것도 單獨墓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유적이다. 아래에서는 石室墓에 限해서 그 遺構 및 遺物配置상의 特徵과 屍身의 枕向을 살펴보겠다.

墓室 築造상의 特徵을 보면, 各墓는 四壁을 만드는 石材에 따라 3종류의 墓室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數枚의 板石만을 사용하여 四壁을 만든 墓, 板石과 割石을 혼용한 墓, 割石만을 사용한 墓이다. 數枚의 板石만으로 墓室의 四壁을 만든 墓는 第1, 12, 25號墓이다. 그리고 이들

1) 金廷鶴·鄭澄元: 「五倫臺古墳群 發掘報告書」, 1973, 釜山大學校博物館.

墓의 四壁은, 短壁은 1枚, 長壁은 數枚의 板石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형태로 되어 있다. 3基 모두 蓋石이나 바닥施設은 없다.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四壁을 만든 墓는 第6,7,17,21號 墓이다. 그리고 이들 墓의 四壁을 보면, 短壁은 1枚의 板石만을 세워 만든 형태이고 長壁은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세우거나 쌓아만든 형태이거나 긴 割石을 2~3段 平積하여 만든 형태이다. 四基중 第6,21號 墓는 礫石이나 割石을 깔아 만든 바닥施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蓋石은 4基 모두 없다. 割石만으로 墓室의 四壁을 만든 墓는 숫적으로 가장 많은 21基나 되며 이 古墳群에서 주류를 이루는 형태의 古墳이다. 그러나 이들 21基의 古墳중 第9號 墓는 主·副室을 다 갖춘 墓로 이 古墳群에서는 特異한 구조를 가진 墓에 속한다. 第9號 墓를 보면, 主室은 남쪽, 副室은 主室에서 90cm 떨어진 북쪽에 築造되어 있다. 主室의 構造를 보면, 東西兩 長壁과 北短壁 하나는 割石을 4~5段으로 쌓아 만든 형태이고 南短壁은 긴 割石 4枚를 平積하여 4段으로 만든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天井은 원래 긴 板狀의 蓋石 4枚를 橫架한 상태로 만들어졌으며 墓室바닥은 아무런 施設을 하지 않을 生土바닥 그대로이다. 副室은 割石을 3~4段 쌓아 만든 橢圓形에 가까운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크기를 보면, 폭 115cm, 길이 80cm로 폭이 길이보다 크며 깊이는 50cm로 主室의 깊이 65cm보다 조금 얇아 主·副室을 전체적으로 보면 段이진 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屍身을 安置한 主室은 조금 깊이 遺物을 부장한 副室은 主室보다 약간 높게 만들어져 있다.²⁾ 다음 蓋石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五倫臺古墳 가운데 蓋石이 확인된 墓는 앞서본 2基 밖에 없고 이들 蓋石은 4~5枚 긴 板狀의 石材를 橫架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조사시 비록 蓋石이 露出되지 않은 墓일지라도 처음부터 蓋石을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파손된 遺構가 아닌 경우에도 蓋石이 露出되지 않은 墓는 石材의 蓋石 대신에 木蓋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³⁾ 墓室 바닥施設은 板狀의 石材를 깔 것이 5基, 割石 또는 礫石을 깔 것이 6基, 아무런 施設을 하지 않은 生土바닥 그대로인 것이 17基로 施設없이 生土바닥 그대로인 墓가 숫적으로 가장 많은 數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硯石 등이 발견되어 木棺 사용이 확실한 것은 第3號 墓 1基이며 다른 墓는 그 사용 여부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이들 木棺 사용 여부에 대하여는 다른 유적의 예를 보아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은 墓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그리고 木棺을 사용한 第3號 墓는 割石으로 四壁을 만든 墓로 바닥施設이나 蓋石은 없다.

墓室의 長軸方向을 보면, 第29號 墓 1基는 東西向이며 나머지는 南北向으로 南北向이 압도적으로 많은 數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五倫臺古墳에서는 일관성있는 墓室長軸의 방향이 채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墓에 안치되어 있었던 개개의 屍身에 대한 枕向을 확인하는 문제는 모든 墓가 다 殘存人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向을 취하고 있었는지 그 枕向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墓室長軸의 方向이라든지, 遺物配置상의 특징이라든지 枕向을 推定해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각 遺構別로 遺物配置狀態를 檢討

2) 이렇게 副室과 主室의 깊이를 달리하여 段이 지게한 好例로서 비록 主·副室을 따로 設置하지는 않았으나 禮安里 土壙墓의 一部에도 段이진 主·副室의 施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

3) 金廷鶴·鄭澄元: 前揭書, p. 51參照.

하여 屍身の 枕向 및 遺物配置狀態의 特徵을 살펴보겠다. 그러나 事前 유물을 欠實한 遺構나 또 유물이 한 두 점만 남은 遺構는 그 배치상의 특징이나 枕向을 推定하는데 큰 도움이 안되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고 遺構나 遺物의 부장상이 비교적 原狀에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第3號 墓는, 墓室 兩端의 幅이 北短壁은 85cm, 南短壁은 70cm로 北短壁이 넓다. 그리고 出土된 遺物중 土器 4點 모두는 南短壁 가까이에서 出土되었으며 鐵器 26點은 대부분 墓室의 중앙에서 불규칙하게 出土되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墓室의 北短壁 폭이 넓고 土器 4點이 모두 南壁 가까이에서 出土된 현상은, 頭向쪽 短壁의 폭이 넓은 石棺墓의 例⁴⁾나 屍身の 발아래쪽이 主된 토기의 부장처로 선정되고 있는 餘他 遺蹟의 同一한 현상과 비교해 볼 때 이 墓 屍身の 枕向은 北枕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南端에서 出土된 土器 6點은 小形 有臺把手附短頸壺 1點, 高杯 3點 등으로 小形이고 少量이며 또 이 古墳에서 出土된 鐵器의 數量으로 보아서도 원래 이 墓에 부장되어 있었던 土器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 墓 土器의 主부장처는 오히려 北端이었으며 屍身の 枕向도 南向이었음을 알 수 있다. 第4號 墓는 비교적 소규모인데도 불구하고 出土된 土器는 大小 6點으로 이 古墳遺物의 부장상은 비교적 原부장상태를 간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土器는 모두 北短壁쪽에 붙여 있다. 그러므로 이 墓의 枕向은 土器의 主부장처와 반대되는 南쪽 즉 南向이다. 第9號 墓는 앞서본 主·副室을 갖춘 墓로 主室에 배치된 유물의 부장상태는 다음과 같다. 즉 土器 9點은 北短壁쪽에, 斧와 鎌은 北短壁 가까이, 環頭大刀, 有刺利器 각 1點은 東長壁 중앙지점에, 鉞 1點, 鏃 2點은 西長壁 南端에 配置되어 있다. 이렇게 土器 9點 모두가 北短壁쪽에 배치된 점과 副室 또한 主室의 北쪽에 設置된 점을 볼 때 이 墓에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の 枕向은 南向이었음을 알 수 있다. 第13號 墓는 부장된 土器중 高杯 1點만이 南短壁 쪽에서 出土되고 나머지 11點은 北短壁 쪽에서 出土된 古墳이다. 그러므로 이 墓 土器의 主부장처는 北短壁 쪽이고 아울러 屍身の 枕向은 이와 반대되는 南쪽 즉 南向이다. 第29號 墓는 이 古墳群에서 유일하게 墓室의 長軸이 東西向인 古墳이다. 그리고 墓室의 규모도 길이 435cm, 너비 69~97cm, 깊이 60cm로 가장 크다. 그러나 墓室의 규모에 비하여 出土된 遺物은 少量으로 殘存 鐵器는 한 점도 없었고 土器만 5點이 남아 있었다. 물론 이러한 遺物狀은 原부장상태가 아닌 것으로 鐵器를 비롯한 多數의 土器를 缺實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殘存한 土器인 高杯 2點, 把手附盃 2點, 赤褐色 盃 1點 모두가 東短壁쪽에 配置되어 있었다. 이렇게 高杯를 비롯한 小形土器類와 赤褐色 盃이 東短壁쪽에 배치된 現狀은 이들 土器의 종류를 고려해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이 墓 屍身の 枕向은 東枕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비교적 大形土器나 土器의 主부장처도 西短壁쪽이었음을 가르켜 주고 있다.

나. 華明洞古墳

이 古墳은 金海平野가 건너다 보이는 洛東江의 東岸, 釜山市 北區 華明洞山 300番地, 海拔 500m 가량의 작은 동산에 위치한 소규모의 古墳群이다. 이곳에서 조사된 古墳은 豎穴式長方形 石室墓 7

4) 韓炳三: 「青銅器文化의 墓制」(韓國史) I 古代, 1977, 國史編纂委員會.

기이며 각 墓는 동산의 정상부와 東南쪽 斜面에 築造되어 있는 데 정상부에서 下端部로 내려가면서 능선을 가로질러 一基씩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 古墳은 조사시 封墳의 形態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없고 墓室도 거의 완전한 것은 1基 뿐으로 遺構의 파손도 심하고 遺物도 대부분 缺實된 상태에 있다.⁵⁾

墓室의 構造를 보면, 長軸의 方向은 東西向이 6基, 南北向이 1基로 東西向의 墓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四壁은 모두 大小 일정치 않은 割石만을 사용하여 만든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4基의 壁石사이에서는 粘土를 발랐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第1號 墓는 四壁중 한개의 短壁이 1枚의 板石과 數枚의 割石으로 된 것으로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墓室을 만든 것과 비슷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유적에 있어서 이러한 종류의 墓는 兩短壁 모두가 板石만으로 된 것이므로 그러한 墓와 비교했을 때 이 墓도 割石만으로 四壁을 만든 종류의 墓에 속한다. 墓室바닥 施設은 작은 板狀의 石材를 드문 드문 깔것이 1基, 작은 割石을 깔것이 5基, 아무튼 施設없이 生土바닥 그대로인 것이 1基로 나머지 한 基를 제외하면 모두 바닥施設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第6號 墓에서는 割石바닥施設 위에 다시 粘土를 발랐음이 확인되었다. 바닥施設이 있는 이들 6基중 遺存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3基의 바닥施設을 보면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墓室바닥 全面에 設置하는 것이 아니라 兩短壁쪽에는 일정 범위의 공간을 남기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어느 한 短壁쪽으로는 더 크게 공간을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어느 한 短壁쪽에 더 큰 공간을 남겨놓은 것은 이곳에 遺物 특히 土器의 主부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반대쪽이 屍身의 枕向쪽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닥施設의 설치특징은 바로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의 枕向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이 古墳群에서 蓋石은 遺構의 파손상태가 심하여 그 有無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남은 것은 1基 밖에 없었다. 그리고 椁 등이 발견되어 木棺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墓나 또 遺骸가 殘存한 墓도 없었다. 그러나 다른 유적의 例로 미루어 보아 처음부터 木棺을 사용하지 않은 墓가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遺物의 遺存狀이 부분적으로나마 原狀을 간직하고 있는 墓는 3基 밖에 없었으므로 遺物配置상의 특징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아래 第2,5號 墓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2號 墓에서는 土器 8點, 鐵器 5點이 出土하였는데 土器는 東西 兩短壁과 墓室의 중앙지점 南長壁부근에 배치되어 있었다. 東短壁 부근에서 出土한 土器는 高杯 2點, 圓底壺, 有台壺, 繩蓆文壺 각 1點이다. 그리고 西短壁 부근에는 大壺 1點, 高杯 7點이 배치되어 있었다. 鐵器는 墓室중앙 바닥施設이 있는 가장자리와 西短壁쪽에서 出土하였는데 墓室중앙에 배치된 것은 刀子 1點이며 西短壁쪽에 배치된 것은 斧 3點이다. 이상 第2號 墓의 유물배치 상태를 보면 土器는 3곳에 나뉘어 배치되어 있으나 數의으로는 西短壁쪽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곳 土器를 가장 많이 부장한 西短壁쪽이 土器의 主부장처이다. 그리고 西短壁쪽이 土器의 主부장처임은 이 墓의 바닥施設에 있어서도 나타나 있는데 割石을 깔지않은 더 넓은 공간이 西端쪽에 마련되어 있는 현상을 보아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墓에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의 枕向은 土器의 主부장처와 반대되는

5) 金廷鶴·鄭澄元:「釜山華明洞古墳」, 1979, 釜山大學校博物館.

東쪽 즉 東向이다. 第5號墓는 이곳에서 규모가 제일 큰 墓로 길이 348cm, 너비 140cm, 깊이 158cm이며 墓室長軸의 방향은 東西向이다. 그리고 出土된 유물은 土器 8點, 鐵器 3點이 있으나 이 墓의 규모를 고려해 보면 多數의 遺物이 缺實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보고서에서 出土된 위치를 밝힌 것으로 東短壁쪽에 圓底壺 1點, 西短壁쪽에 圓底壺 2點이 있고 墓室중앙에 鐵針 1點이 있다. 그리고 바닥施設에 있어서 割石을 깔지 않은 공간은 第2號墓와 마찬가지로 西短壁쪽이 더 넓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물의 배치상태와 바닥施設의 특징으로 미루어 보면 第5號墓 역시 土點의 主부장처는 西短壁쪽이고 屍身의 枕向은 東向임을 알 수 있다.

다. 福泉洞古墳

이 古墳은 釜山市 東萊區 現 東萊高校 뒷산인 望月山과 東萊女高 사이에 南北으로 뻗어있는 細長한 능선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封墳이 남아 있거나 외형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古墳은 없다. 이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9년 능선의 西斜面 宅地 공사지에서 東亞大 博物館이 파고고분을 긴급 조사하였으며, 1974년 9월 역시 능선의 중앙부근 東斜面 宅地 공사지에서 釜山大博物館이 4基의 古墳을 조사하였는 바 鶴巢臺古墳이라 명명하였다. 또 1980년에는 능선의 정상부 일원에 걸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으로 丘陵의 北端 1,000餘坪에 대한 발굴조사가 釜山大博物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980년의 조사에서는 長方形石室墓의 單獨墳의 主室은 長方形石室, 副室은 長方形土壙으로 된 새로운 墓制형식인 대규모 古墳 數基를 확인하였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福泉洞古墳중 1969년 東亞大博物館에서 調査한 福泉洞 第1號墓⁶⁾와 1974년에 조사한 鶴巢臺古墳중 長方形石室墓 2基에 限하여 略報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1) 福泉洞 第1號墓

古墳이 위치한 곳은 釜山市 東萊區 福泉洞 47의 1番地이며 이곳은 南北으로 뻗어 있는 능선의 거의 중앙부근 西斜面에 해당한다. 이 墓는 발굴조사 당시 封墳등 외형적인 형태나 규모를 알 수 있는 시설이 남아 있는 것은 없었다. 지하에 마련된 墓室 長軸의 방향은 南北向이며 크기는 길이 8.3m, 너비 1.3~1.4m, 깊이 3m이다. 이러한 墓室의 크기를 볼 때 이 墓는 너비에 비하여 길이가 현저하게 긴 構造의 特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墓는 화강암제 割石만을 사용하여 墓室의 四壁을 만든 堅穴式長方形 石室墓이다. 四壁을 만들 때는 10段의 割石으로 된 壁이 도피되지 않도록 3重으로 쌓아 積心을 강하게 하였으며⁷⁾ 또 壁面에는 粘土까지 도포하여 도피방지는 물론 墓室 자체의 美裝까지 하였다. 墓室天井은 8枚의 긴 板狀의 石材를 橫架하고 사이 틈에는 작은 割石으로 메운 후 그 위에 다시 두텁게 粘土를 발라 封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構造를 볼 때 이 墓는 墓室 자체의 규모도 크고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어진 墓로 小型古墳에서 大型古墳으로 발전된 하나의 좋은 예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墓의 構造의 特徵의 하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墓室의 길이를 길게 만든 것에 있으며, 이렇게 墓室의 길이를 길게 만든 이유는 많은 副葬品의 부장처 마련을 위한 한 방편에 있었다. 즉 많은 副葬品을 수장하기 위해서 副槨등 별도의 시설

6) 金東鎬:「東萊福泉洞 第一號古墳發掘調査報告」, 1971, 東亞大學校博物館.

7) 金東鎬: 前揭書, p. 8參照.

을 마련하기보다 主室 하나만의 單獨墳 형태를 고수함으로써 그와 같은 특징적인 墓室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副槨을 마련하고 그곳에다 副葬품을 수장하기 보다 主室 하나만 있는 單獨墳의 墓室 길이만 좀 더 길게 만들므로써 主室에만 유물의 부장처가 마련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이 墓는 時期的으로 아직 單獨墳의 형태가 계속되는 時期에 築造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遺物配置상태를 보면, 土器의 副葬狀에 있어서 圓底長頸壺를 올려놓은 상태의 筒形器臺와 有蓋高杯, 有臺深鉢(鉢形器臺) 등 一群의 土器類는 墓室의 南端쪽에 정연히 배치되어 있고 2點의 大甕을 비롯하여 각종의 더 많은 土器類는 北端에 2重, 3重으로 포개 놓는 상태로 배치된, 주목되는 유물배치상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鐵器는 四方壁面을 따라 배치되어 있고 裝身具는 南短壁쪽 중앙지점에서 出土하였는데 屍身に 着裝시키지 않은 상태로 부장되어 있었다.⁸⁾ 이러한 유물 배치상태를 볼 때 이 墓에 있어서 土器의 主부장처는 墓室의 北短壁쪽임을 알 수 있고 器臺類, 高杯類, 裝身具類 등의 부장처는 屍身の 머리쪽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墓에서는 유물에 따른 어느 정도 부장처의 位置的 特徵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⁹⁾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の 枕向 또한 南向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鶴巢臺古墳

古墳이 위치한 곳은 釜山市 東萊區 福泉洞 65番地로 이곳은 능선의 거의 중앙부근 東斜面이다. 鶴巢臺古墳이라는 명칭은 이 능선의 南端을 일찍이 鶴巢臺라 부르고 있는데 연유하고 있다. 이 遺蹟에서 조사된 豎穴式長方形石室墓는 2基이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第1區1號墓는 墓室 長軸의 方向이 東西向이며 규모는 길이 3.8m, 너비 1.3m, 깊이 1.2m이다. 墓室構造를 보면, 割石을 8~9段으로 쌓아 四壁을 만들고 바닥에는 墓室 중앙부에 小割石을 형성하게 한돌 깔아 만든 바닥施設을 가지고 있는 構造로 되어 있다. 蓋石의 有無는 조사시 이미 遺構의 상부 대부분이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으며 四壁과 바닥施設에서는 黃褐色粘土를 바른 흔적이 확인되었다.

遺物配置 상태를 보면, 東西 兩端에 土器群이 있고 北長壁을 따라 대부분의 鐵器가 있다. 그리고 西端에 배치된 土器는 高杯6點과 赤褐色 把手附盃1點의 小形土器 7點이고 東端에 배치된 土器는 器臺를 비롯한 赤褐色 把手附盃등 9點이다. 그리고 이 墓에서는 割石바닥施設 四隅에서 硜石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硜石이 存在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 墓는 木棺을 사용했던 것이고 또 割石바닥施設은 棺臺로 마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墓에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の 枕向에 대해서는 殘存人骨도 없고 배치된 유물의 내용이나 위치를 고려해 보아서도 어느쪽이 屍身の 枕向이었는지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東端에 배치된 土器量이 西端보다 많은 점과 또 棺臺가 西短壁으로 치우쳐 마련된 점은 東端部가 土器의 主부장처이고 또 屍身の 발아래쪽이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墓에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の 枕向에 대하여는 他例와는 달리 西枕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8) 金東鎬：前掲書，p. 20參照.

9) 發掘調査報告書에서도 土器의 경우 貯藏用 또는 運搬用은 遺骸의 발쪽에, 祭祀用은 머리쪽에 配置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음.

第2區 1號墓는 墓室 長軸의 方向이 東西向인 것으로 규모는 길이 3.1m, 너비 70~90cm, 깊이 80cm이다. 墓室의 四壁築造 상태는 板石 및 割石을 혼용하여 四壁을 만들었는데 四壁 모두가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墓는 비록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墓室의 四壁을 만든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이 지역 다른 유적의 墓室형태에 있어서 短壁은 板石, 長壁은 割石으로 된 構造와 비교해 볼 때는 약간 相異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렇게 相異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石材의 차이에 있는지 아니면 築造방법의 변화에 따른 그 時期를 반영한 결과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는 더 많은 자료의 증가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墓室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生土 그대로이며 蓋石 역시 설치되지 않았다.

遺物配置 상태는 東西兩端에 土器群이 있고 北長壁을 따라 鐵器가 배치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東端에서 出土된 土器는 赤褐色壺, 器台의 脚部片 등 5個分이고 西端에서 出土된 土器는 高杯와 圓底壺, 把手附有蓋壺 등 3種 15個分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물배치 상태를 살펴 보는데 이 墓 土器의 主부장치는 西端이고 屍身의 枕向은 東向으로 판단되어진다.

라. 禮安里古墳

이 遺蹟은 慶南 金海郡 大東面 禮安里 詩禮부락에 있다. 이곳은 洛東江下流의 西岸으로 江물이 운반한 土砂가 堆積되어 이루어진 底平한 砂丘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古墳은 이 砂丘에 형성되어 있다. 이 遺蹟에 대한 발굴조사는 1976년 5월부터 1980년 1월에 걸쳐 國立中央博物館 및 釜山大博物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國立中央博物館에서 조사한 것은 石槨墓 22基, 甕棺墓 8基, 土壙墓 2基이며¹⁰⁾ 釜山大博物館에서 조사한 것은 長方形石室墓 88基, 方形石室墓 14基, 甕棺墓 16基, 土壙墓 62基이다. 그러나 이 遺蹟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서는 아직 준비중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豫報¹¹⁾ 등 이미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概略的으로 살펴 보겠다.

이곳에서 조사된 豎穴式長方形石室墓는 그 構造상 墓室의 四壁, 바닥施設 등에서 몇가지로 區分되었다.¹²⁾ 墓室 四壁이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 數枚의 板石으로 만든 것, 둘째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것, 즉 兩短壁은 板石으로, 長壁은 割石으로 만든 것, 셋째 四壁 모두 割石만으로 만든 것이다. 다음 墓室바닥 施設상태에 있어서는 첫째 板石을 깔 것, 둘째 割石을 깔 것, 셋째 短壁과 나란히 떠엄떠엄 列石施設을 한 것, 넷째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生土바닥 그대로인 것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 遺蹟에 있어서 豎穴式長方形石室墓의 墓室바닥施設은 모두 어느 한 短壁쪽으로 치우쳐 만들어진 형태이므로 그 반대편 短壁쪽으로는 바닥施設이 없는 상태로 일정한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墓室長軸의 方向은 개개 遺構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東西向과 南北向의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數的으로는 東西向이 약간 많은 정도이다. 蓋石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일정치 않으며 設置된 것은 數枚의 긴 板狀의 石材를 橫架한 상태로 만들어

10) 姜仁求: 「金海禮安里의 伽倻古墳群 發掘調査略報」, 1976. 7. 1, 國立博物館「博物館新聞」第60號.

11) 金廷鶴: 「金海禮安里古墳群 發掘調査豫報」, 1977. 4, 韓國考古學報 2, 韓國考古學 研究會.

林孝澤: 「洛東江下流 加耶土壙墓의 研究」, 1978. 4, 韓國考古學報 4, 韓國考古學 研究會.

林孝澤: 「洛東江下流 禮安里石棺墓」, 一加耶墓制의 一例一, 1979. 2, 釜大史學 第三輯.

12) 林孝澤: 前揭書, p. 98參照.

져 있다. 그리고 일부 遺構에서는 墓室의 內壁이나 바닥 또는 蓋石과 蓋石사이에 灰褐色粘土를 바른것이 확인되었다. 屍身의 安置상태나 枕向에 대하여는 이 古墳群은 대부분의 墓가 人骨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다. 즉 墓室의 長軸이 南北向인 墓는 北向, 東西向인 墓는 東向인 枕向을 가지고 있음과 한 墓에 한 軀의 屍身을 伸展仰臥狀態로 安置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綜合的 考察

加耶古墳의 立地는 高句麗나 古新羅 고분의 그것과는 달리 丘陵 稜線의 頂上部 또는 斜面이 適地로 선정되고 있는데¹³⁾ 이 地域 堅穴式長方形 石室墓의 立地도 거의 同一한 條件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對象유적 가운데 禮安里 古墳은 대부분의 遺構가 底平한 砂丘에 形成되어 있으므로 약간 예외적인 立地를 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적도 北쪽의 작은 말산(馬山)의 末尾에서부터 南쪽의 底平한 砂丘에까지 古墳이 연속된 상태로 形成되어 있으므로 平地에 築造된 立地的 조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 유적도 北쪽의 작은 말산을 배경으로 南向한 立地的 위치에 形成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稜線의 정상부와 斜面에 배치되어 있는 이들 각 古墳은 특히 東斜面, 南斜面에 築造되고 있는데 이것은 住宅이나 幽宅이나 間에 모두 양지바른 곳을 適地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곳이 적지로 선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간혹 예외적으로 西斜面에 築造된 경우는, 이들 古墳이 모두 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遺蹟址 전체 條件에 따라 그렇게 된 現狀에 불과하며 원칙적으로는 양지바른 곳이 선택되고 있다. 그리고 稜線의 정상부 등 높은 곳이 加耶古墳의 立地로 선정되고 있는 이유으로써는 高燥의 地를 神聖한 良地로 생각한 당시의 埋葬觀念에 있다는 견해¹⁴⁾와 繼世思想에 따라 冥界에 가까운 높은 곳에 安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¹⁵⁾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百濟古墳의 立地에 대하여는 四神思想 結果에 의한 것으로 그 선정 이유가 밝혀져 있다.¹⁶⁾

墓室의 構造에 대하여 살펴보면, 五倫臺 古墳에서는 主·副室을 갖춘 형태의 것이 1基있었으나 다른 遺蹟에서는 모두 主室 하나 뿐인 單室墓로 單室墓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墓室四壁을 築造하는 石材의 모양과 방법에 따라서는 板石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石室墓, 割石만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로 區分된다. 이러한 諸種의 墓室은 유적에 따라서는 위의 3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나 어떤 곳은 1개 또는 2개만 있는 곳도 있어 일정치 않은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이들 諸種의 墓室形態 가운데 가장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은 割石만으로 四壁을 만든 石室墓이다. 그리고 墓室 축조상의 이런 차이는 단

져 있다. 그리고 일부 遺構에서는 墓室의 內壁이나 바닥 또는 蓋石과 蓋石사이에 灰褐色粘土를 바르면서 확인되었다. 屍身의 安置상태나 枕向에 대하여는 이 古墳群은 대부분의 墓가 人骨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다. 즉 墓室의 長軸이 南北向인 墓는 北向, 東西向인 墓는 東向인 枕向을 가지고 있음과 한 墓에 한 軀의 屍身을 伸展仰臥狀態로 安置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Ⅲ. 綜合的 考察

加耶古墳의 立地는 高句麗나 古新羅 고분의 그것과는 달리 丘陵 稜線의 頂上部 또는 斜面이 適地로 선정되고 있는데¹³⁾ 이 地域 堅穴式長方形 石室墓의 立地도 거의 同一한 條件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對象유적 가운데 禮安里 古墳은 대부분의 遺構가 底平한 砂丘에 形成되어 있으므로 약간 예외적인 立地를 선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적도 北쪽의 작은 말산(馬山)의 末尾에서부터 南쪽의 底平한 砂丘에까지 古墳이 연속된 상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平地에 築造된 立地의 조건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이 유적도 北쪽의 작은 말산을 배경으로 南向한 立地의 위치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稜線의 정상부와 斜面에 배치되어 있는 이들 각 古墳은 특히 東斜面, 南斜面에 築造되고 있는데 이것은 住宅이나 幽宅이나 間에 모두 양지바른 곳을 適地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한 곳이 적지로 선정되었다고 보여진다. 간혹 예외적으로 西斜面에 築造된 경우는, 이들 古墳이 모두 群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遺蹟址 전체 條件에 따라 그렇게 된 現狀에 불과하며 원칙적으로는 양지바른 곳이 선택되고 있다. 그리고 稜線의 정상부 등 높은 곳이 加耶古墳의 立地로 선정되고 있는 이유로서는 高燥의 地를 神聖한 良地로 생각한 당시의 埋葬觀念에 있다는 견해¹⁴⁾와 繼世思想에 따라 冥界에 가까운 높은 곳에 安葬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¹⁵⁾ 등이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百濟古墳의 立地에 대하여는 四神思想 結果에 의한 것으로 그 선정 이유가 밝혀져 있다.¹⁶⁾

墓室의 構造에 대하여 살펴보면, 五倫臺 古墳에서는 主·副室을 갖춘 형태의 것이 1基있었으나 다른 遺蹟에서는 모두 主室 하나 뿐인 單室墓로 單室墓가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墓室四壁을 築造하는 石材의 모양과 방법에 따라서는 板石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石室墓, 割石만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로 區分된다. 이러한 諸種의 墓室은 유적에 따라서는 위의 3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곳도 있으나 어떤 곳은 1개 또는 2개만 있는 곳도 있어 일정치 않은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에 있어서 이들 諸種의 墓室形態 가운데 가장 主流를 이루고 있는 것은 割石만으로 四壁을 만든 石室墓이다. 그리고 墓室 축조상의 이런 차이는 단순히 石材 그 자체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관습상의 이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時期的인 先後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 池山同 第44, 45號

13) 金廷鶴編:「韓國의考古學」, 1972, 河出書房新社.

14) 金廷鶴編:前掲書, p. 198參照.

15) 李殷昌:「伽耶墓制의 研究」, p. 9參照, 1981, 曉大論文集.

16) 姜仁求:「百濟古墳研究」, p. 7參照, 1977, 一志社.

墳¹⁷⁾은 한 護石內에 있는 각기 35, 13個나 되는 大·小 石室 가운데 위에 든 3가지 종류를 다 가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으며 이 地域 禮安里 古墳은 사용된 石材의 모양과 그에 따른 축조상의 차이는 時期的인 先後를 반영하고 있어 年代編年을 위한 좋은 기준이 되고 있다. 즉 각 墓의 重複關係에서 첫째 板石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 둘째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石室墓, 셋째 割石만을 사용하여 만든 石室墓 順으로 그 築造時期의 先後를 알 수 있다. 그리고 墓室四壁이 割石만으로 된 石室墓는 첫째 棺臺나 屍床이 없는 石室墓, 둘째 板狀의 石材를 깔아 만든 형태의 棺臺를 가진 石室墓, 셋째 떠엄떠엄 列石을 깔아 만든 형태의 棺臺를 가진 石室墓 順으로 그 築造時期의 先後를 보여주고 있다.¹⁸⁾ 墓室바닥 施設에 있어서는 위에는 禮安里 古墳의 3종류 외에도 割石을 깔아 만든 棺臺 또는 屍床을 가지고 있는 유적도 있어 이 地域에 있어서는 4종류의 바닥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들 棺臺 또는 屍床은 또 墓室內 어느 한 短壁쪽으로 치우쳐 마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어느 한 短壁쪽으로 치우쳐 棺臺 또는 屍床을 마련하는 경우 다른 한 短壁쪽에는 보다 큰 공간이 남게 되어 각 墓에 있어서는 이곳을 土器의 主부장처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棺臺 또는 屍床을 만드는 특징이 屍身의 枕向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즉 土器 主부장처의 반대되는 方向이 屍身의 枕向이다. 다음 墓室의 壁面이나 바닥, 蓋石사이 등에 粘土를 바른 것은 墓室 내로 異物質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며 新羅, 百濟古墳에서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現狀이다. 실제 잘 짜여진 壁과 蓋石사이 粘土를 바른 遺構에서는 발굴 조사시 墓室內 腐蝕土가 차 있지 않아 거의 빈 공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粘土 사용의 例로는 이보다 앞선 時間의 古墳인 土壙墓에서도 그 例를 흔히 볼 수 있다.¹⁹⁾ 그러므로 古墳築造상 粘土를 사용한 것은 보다 이른 時期부터 채택되어져 온 하나의 전통으로 보여진다. 蓋石의 설치에 대하여서는 발굴조사시 대부분의 遺構가 蓋石없이 露出되었으나 蓋石이 설치된 墓의 蓋石露出 상태를 보면 數枚의 板狀의 石材를 墓室 상부에 橫架하고 사이 틈에는 작은 割石 등으로 메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파손된 흔적이 없는 墓 중에서 蓋石이 露出되지 않은 墓는 木蓋 등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다른 지역 加耶古墳에 있어서 이들 木蓋를 사용한 古墳으로 보고 있는 것에는 善山 洛山洞 152號墳, 義城 塔里 I, II 槨이 있다.²⁰⁾

護石이나 封墳의 설치 여부나 그 형태에 대하여는 이 지역 각 遺構는 조사시 地下遺構를 제외한 上部가 이미 削平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 加耶古墳 중에서 이들 封墳이 남아 있었던 例를 보면, 封墳의 형태는 圓形 내지 橢圓形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封墳은 粘土 등을 다져 築成한 것, 板石, 割石을 섞은 흙으로 築成한 것 등이 있으며²¹⁾ 池山洞 45號墳은 굵은 모래알과 크고 작은 割石이 많이 섞인 黃色粘土를 두텁게 깔아 다진 다음 그 위에 赤褐色의 割石이 드물게 섞인 粘土를 10餘cm 두께로 깔되 이를 반복하는 版築式의 盛土方法으로 封土

17) 尹容鎮 : 「高靈池山洞 44號古墳 發掘調査報告」, 1979. 2. 15, 高靈郡.

金鍾徹 : 「高靈池山洞 45號古墳 發掘調査報告」, 1979. 2. 15, 高靈郡.

18) 林孝澤 : 前揭書, p. 98參照.

19) 林孝澤 : 前揭書, p. 96參照.

20) 金元龍 : 「한국의 고분」, p. 137參照, 1974. 12. 15,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21) 全吉姬 : 「伽耶墓制의 研究」, 1961, 梨大史苑 3輯.

頂部까지 쌓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²²⁾ 그리하여 이 지역의 竪穴式長方形石室墓의 封墳도 上記한 형태일 것으로 짐작되나 小形墳일 경우 그 규모는 작았을 것이다. 護石은 封土의 流失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墳墓의 境界와 규모를 표시하기 위하여 墳丘의 基底周圍에 外護列石의 시설을 한 것이나²³⁾ 이 지역 각 墓에서는 그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時期的으로 볼 때 적어도 小形竪穴式長方形石室墓가 주로 築造되는 時期까지는 이들 護石의 일반적인 설치 현상은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있어서 護石이 설치되고 있는 墓로는 橫口式石室墓가 主流를 이루고 있는 德川洞古墳이 있기 때문이다.²⁴⁾ 그리하여 護石의 설치 현상은 竪穴式長方形石室墓로는 高塚古墳과 橫口式石室墓 時期에 와서 나타나며 이들 護石은 또 加耶古墳의 築造 方法상에 있어서는 하나의 後來的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墓室長軸의 方向에 대하여서는 이 지역 각 墓는 南北과 東西의 크게 2個의 方向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墓室長軸의 方向은 한 遺蹟 내에도 南北과 東西方向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지역에 있어서 墓室長軸의 方向은 洛東江을 境界로 한 東西兩 地域間的 地域的인 相異點은 없으며 다만 遺蹟에 따라 南北向이나 東西向이 순적으로 각각 우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枕向의 경우는 洛東江 東岸의 長軸이 東西向인 墓는 東枕, 南北向인 墓는 南枕이나 西岸의 禮安里古墳의 南北向인 墓는 北枕으로 약간의 地域的인 特色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時期의 禮安里 土壙墓의 枕向 전통으로 미루어 보면 이 지역 加耶古墳은 東西墳 東枕이 원래의 墓室長軸의 方向과 枕向이었음을 알 수 있고²⁵⁾ 南北墳 南枕이나 北枕은 이보다 後來的인 전통임을 알 수 있다.

다음 각 墓에 있어서 安置된 屍身의 數나 安置方法에 관하여는 이들 遺構의 구조 자체가 竪穴式이고 또 一回用인 점과 또 人骨이 거의 온전하게 남아 있었던 禮安里 各 墓의 例를 동시에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각 墓室에 屍身을 安置할 때는 한 墓에 한 軀의 屍身을 墓室 위에서부터 아래 墓室內로 伸張仰臥 상태로 安置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발굴조사를 한 福泉洞의 대형 古墳중에서는 主室內 주인공의 발아래쪽에서 殉葬遺骸가 발견되어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遺物配置狀態는 각 遺蹟이 거의 大同小異한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土器의 부장위치에 있어서는 약간의 地域的인 特色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禮安里古墳에서는 屍身의 발아래쪽에 배치하였음에 대하여 다른 古墳에서는 머리쪽과 발아래쪽 2個지점 모두에 배치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兩地點에 土器를 배치한 遺構에 있어서도 土器의 主부장처는 屍身의 발아래쪽이다. 그리고 부장된 土器의 종류에 있어서 小形의 赤褐色 軟質土器와 高杯, 罍類 등은 대체로 屍身의 머

22) 金鍾徹：前掲書，p. 200參照.

23) 金廷鶴編：前掲書，p. 198參照.

金鍾徹：前掲書，p. 200參照.

24) 1981年 釜山市立博物館이 주관하여 發掘調査한 德川洞古墳 橫口式石室墓는 多數의 古墳이 圓形狀의 外護石 施設을 가지고 있음.

25) 林孝澤：前掲書，p. 95參照.

26) 金廷鶴：〈土器〉「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 韓國文化」，p. 514, 524에서 高杯, 赤褐色罍形 土器는 祭祀

리쪽에 배치된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²⁶⁾ 이러한 현상은 또 棺臺나 屍床이 설치된 위치와 함께 屍身의 枕向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다음 이 지역 諸 加耶墓制와의 關係속에서 이들 竪穴式長方形石室墓의 대체적인 編年的 위치를 살펴 보겠다. 이 지역에 있어서 종래까지 알려진 加耶墓制로는 竪穴式長方形石室墓와 橫穴石室墓가 있다. 그리고 竪穴式長方形石室墓 가운데 小形墓는 대체로 이른 時期의 加耶墓로, 橫穴式石室墓인 三山里 第1號墳, 梁山夫婦塚은 加耶古墳으로서는 늦은 時期의 墓로 알려져 있다.²⁷⁾ 그러나 최근 일년의 발굴조사에서는 土壙墓, 方形石室墓, 橫口式石室墓, 甕棺墓등 새로운 墓制를 가진 遺蹟이 발견되어 이 지역에 있어서도 多樣한 종류의 墓制가 存在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概報등 부분적인 소개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여 약간의 私見과 아울러 이들 諸 墓制의 發展段階를 살펴 보겠다.

土壙墓는 이 지역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몇개의 遺蹟을 대상으로 拙稿²⁸⁾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小形 竪穴式長方形石室墓가 아닌 이들 土壙墓가 加耶墓制로는 가장 先行하는 墓制이다.

方形石室墓는 禮安里 遺蹟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이 墓는 長方形石室墓보다 墓室의 幅을 훨씬 넓게 만든 墓로 거의 正方形에 가깝게 된 것이며 方形石室墓라는 잠정적인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方形石室墓는 비록 加耶古墳으로서의 이곳에서 처음 확인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의 조사에서는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에 조사된 漢江유역의 芳蕘洞 古墳²⁹⁾중 그 構造나 出土遺物이 이곳 方形石室墓의 그것과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1981년 東亞大 박물관에서 조사한 협천 삼가고분중에 연도가 있는 方形石室墓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의 하나로 보여지며 그 年代의 맥락도 거의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禮安里 方形石室墓에서는 모두 한 墓에서 5~8軀分の 遺骸가 발견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 墓가 殉葬墓로 고려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墓는 비록 현재 남은 墓室의 구조가 竪穴式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여러 軀의 屍身이 함께 安置되기도 하였으나 이들 墓가 築造되는 時期에 오면 加耶墓制는 墓制 자체가 크게 一轉하여 종래 한 墓에 한 軀의 屍身을 安置한 土壙墓, 竪穴式長方形石室墓의 單葬의 葬制에서 한 墓에 추가로 屍身을 安置한 方形石室墓의 追加葬의 葬制로 그 墓制가 바뀐 것으로 殉葬墓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 追加葬墓는 家族墓를 뜻하며 이 墓가 築造되는 時期에 오면 아래에서 論할 乳兒 내지 小兒用인 甕棺墓가 거의 소멸되는 하나의 이유도 바로 이들 家族墓가 성행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方形石室墓가 築造되는 時期에 관해서는 이 墓와 다른 종류의 墓와의 重複關係에서 그 대체적인 時期를 알 수 있었는데 禮安里 古墳에서는 가장 늦은 時期의 古墳으로, 또 竪穴式長方形石室墓의 築造時期 以後에 새로이 시작된 墓制임을 알 수 있었다.³⁰⁾

甕棺墓는 종래 金海貝塚, 東萊貝塚에서 조사된 것이 있으나³¹⁾ 최근 加耶古墳群내에서 조사된 것

用으로 만들어진 土器인듯 하며 古墳내 配置方法에서도 그것을 示唆하는 配置方法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27) 全吉姬：前掲書，p. 57參照.

28) 林孝澤：前掲書.

29) 金秉模：「芳蕘洞古墳群」，1977. 6，考古學 第四輯，韓國考古學會.

30) 林孝澤：前掲書，p. 98參照.

31) 金元龍：「金海貝塚年代에 관한 再檢討」，1957，歷史學報 9.

으로는 五倫臺古墳, 槐亭洞古墳³²⁾, 禮安里古墳의 甕棺墓가 있다. 그리고 이들 甕棺墓는 모두 竅穴式 長方形石室墓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많고 그렇지 않은 獨立墳일 때도 時期的으로 거의 同一한 時期에 築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 지역 甕棺墓의 編年的 위치를 짐작케 해 주고 있다. 한편 禮安里 甕棺墓에 대하여는 拙稿³³⁾에서 그 編年的 위치를 소개한 바 있었는데 모두 竅穴式 長方形石室墓의 時期에 造成된 墓로 밝혀 놓았다. 그리고 禮安里古墳 발굴조사에 대한 豫報³⁴⁾에서는 이곳 甕棺墓는 또 陪葬과 비슷한 葬制를 보이는 墓임과 乳兒用임도 지적해 놓고 있다. 槐亭洞古墳 甕棺墓에 관해서는 조사된 10基의 甕棺墓중에 5基는 單獨墳으로, 5基는 長方形石室墓에 陪葬된 墓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들 甕棺墓가 築造된 時期도 이곳 竅穴式 長方形石室墓와 同時期에 築造된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이 지역에 있어서 橫口式 石室墓는 1981년 1월27일부터 同年 4월20일까지 釜山市立博物館이 주관하여 발굴조사한 釜山德川洞古墳群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조사된 67基의 古墳중 64基가 橫口式 石室墓로 이 遺蹟에서는 橫口式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곳 德川洞 橫口式石室墓에서는 殘存人骨이 없어 한 墓에 몇 軀의 屍身을 安置하였는지 확실한 屍身의 數는 잘 알 수 없었으나 遺構의 특징 즉 屍床의 추가설치 상태, 墓室入口의 築造상태나 유물배치상태 등을 통하여 諸墓가 다 數次的 追葬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德川洞 橫口式石室墓는 追葬用的 家族墓임을 밝힌 바 있다.³⁶⁾ 또 副葬遺物의 내용과 그 특징을 통하여 보아서는 비록 온전한 遺構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교적 少量의 유물만 부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물의 副葬狀은 이 德川洞 橫口式石室墓가 築造되는 時期에 오면 이미 薄葬의 風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禮安里 方形石室墓도 薄葬墓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家族墓와 薄葬墓의 성격을 보여주는 점에 있어서는 兩墓가 거의 同一하다. 이들 德川洞古墳의 築造時期는 個個遺構 및 유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발굴보고서에서 밝혀지겠지만 우선 여기서 유물의 특징적인 요소를 통하여 그 대체적인 時期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이곳 德川洞 橫口式石室墓에서 出土된 유물가운데 土器에 있어서는 寶珠形꼭지, 無透窓의 낮은 臺脚, 附加口緣 등의 요소를 가진것과 鐵器는 逆刺式鐵鏃등 그 형태상 加耶古墳 유물로서는 모두 늦은 時期의 것으로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가진 유물을 고려해 볼 때 이 古墳의 築造時期는 A.D 6~7 C頃으로 推定된다.

지금까지 이 지역 諸加耶古墳과 그것의 대체적인 編年的 위치를 살펴 보았거니와 이것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加耶古墳으로써 가장 이른 時期에 築造되고 또 그러한 時期의 主流를 이루는 墓는 土壙墓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竅穴式長方形石室墓가 流行하게 되며 竅穴式長方形石室墓는 小型에서 大型의 高塚古墳으로 發展되어 갔다. 한편 土壙墓와 長方形石室墓는 그 築造되는 時期에 있어서는 前後로 그

32) 鄭澄元: 「釜山槐亭洞甕棺墓」, 1977. 6, 考古學 第四輯, 韓國考古學會.

33) 林孝澤: 前掲書, p. 98, 圖表 2 參照.

34) 金廷鶴: 前掲書, p. 11參照.

35) 鄭澄元: 前掲書, p. 49參照.

36) 釜山の 文化財 策자발간을 위한 원고, 「釜山德川洞古墳」, 1981. 7. 31에서 그 概略的인 內容을 소개하였음.

時期를 달리하고 있지만 이들 古墳이 築造되는 時期까지는 아직도 一回用 單葬의 墓制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 다음 壁穴式長方形石室墓가 加耶墓制의 主流를 이루는 時期 以後에는 方形石室墓, 橫口式石室墓, 橫穴式石室墓등 새로운 墓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墓는 모두 追加葬墓로 이 時期가 되면 加耶墓制의 전통은 크게 一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들 새로운 墓 상호간의 先後문제는 각 墓의 構造를 보아서 종래의 전통인 壁穴式을 고수하고 있는 方形石室墓가 先行하는 墓이고 다음이 橫口式石室墓 그리고 이 橫口式에서 더욱 發展한 橫穴式인 橫穴式石室墓로 발전되었을 것으로 그 發展段階 및 先後를 결정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墓制는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들 諸種이 上記한 順으로 들어오기 보다는 지역에 따라 그 順序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어느 하나 내지 두개의 樣式만 들어올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들 새로운 墓 상호간의 先後문제는 개개 遺蹟出土 遺物의 比較를 통하여 그 先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本稿에서는 留保하거나와 上記 새로운 諸古墳出土遺物을 比較함에 있어서도 이들 새로운 諸古墳은 모두 追葬墓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새로운 屍身을 安置할 때마다 새로운 부장품을 넣었으므로 비록 근소한 차이에 지나지는 않겠지만 한 古墳내에 있는 遺物일지라도 상호 그 부장시기를 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있음을 지적해 둔다. 한편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이러한 諸墓의 發展段階를 고려해 볼 때 加耶古墳은 前期, 土壙墓時期, 中期, 壁穴式長方形石室墓時期, 後期, 方形石室墓, 橫口式石室墓, 橫穴式石室墓 時期로 그 時期가 區分되며 아울러 이러한 墓制에 의한 그 時期의 區分은 加耶時代의 時代區分에도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古墳을 통한 위와 같은 時期의 區分을 加耶時代의 時代區分을 위한 하나의 試案으로 삼고자 한다.

IV. 結 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여 이 지역 壁穴式長方形石室墓의 構造의 특징과 그것에 따른 墓制 및 加耶古墳으로서의 編年的 위치를 규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墓의 立地로는 諸 加耶古墳과 거의 마찬가지로 丘陵狀의 稜線의 양지바른 頂上部 또는 南·東斜面이 適地로 選定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墓는 모두 群을 이루고 있으며 각 墓室長軸의 方向은 거의 南北과 東西의 2個方向을 취하고 있다.

構造상의 특징으로 墓室의 四壁築造 상태를 보면, 사용된 石材의 종류와 그 만드는 방법에 따라 3종류의 墓室形態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 數枚의 板石으로 된 墓室, 둘째 短壁은 板石 長壁은 割石으로 된, 板石과 割石을 혼용하여 만든 墓室, 셋째 割石만으로 된 墓室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종류의 墓室形態 중에서 主流를 이루는 것은 割石만으로 四壁을 만든 墓室을 가진 古墳이다. 墓室築造상에 있어서 사용된 石材의 종류와 만드는 방법에 따른 墓室形態의 變化는, 禮安里古墳의 경우는 그 古墳築造時期의 先後를 반영하고 있으나 다른 遺蹟의 경우는 그 先後가 墓室形態에 따라 一률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板石만으로 四壁을 만든 石室墓는 나머지 종류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時期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이 짐작될 뿐이다. 墓室의 바닥施設은 同一유적 내에서도 시설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一률적이 아니다. 그러나 바닥施設

을 가지고 있는 墓에 있어서의 그것은 모두 棺臺 또는 屍床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棺臺 또는 屍床은 墓室內 일정부분에만 설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어느 한 短壁쪽으로 치우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어느 한 短壁쪽으로 치우쳐 棺臺 또는 屍床을 설치하면 그 반대되는 短壁쪽에는 빈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며 각 墓는 이곳을 土器의 主부장처로 삼고 있다. 아울러 棺臺 또는 屍床을 설치하는 이러한 특징을 통하여 보던 人骨이 남아있지 않은 墓에 安置되어 있었던 屍身の 枕向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枕向은 土器 主부장처의 반대쪽으로 棺臺나 屍床도 枕向쪽으로 치우쳐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墓室의 天井은 긴 板狀의 石材數枚를 橫架하여 만든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발굴조사시 多數의 墓는 蓋石없이 그대로 露出되고 있는데 파손된 遺構를 가진 墓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蓋石天井이 없는 墓의 상당수는 當初부터 蓋石天井을 만들지 않은 墓로 이러한 墓의 天井은 木蓋등이 이용되었으리라 推定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小形竅穴式長方形石室墓중 이른 時期의 것이라고 판단되는 遺構에서 더욱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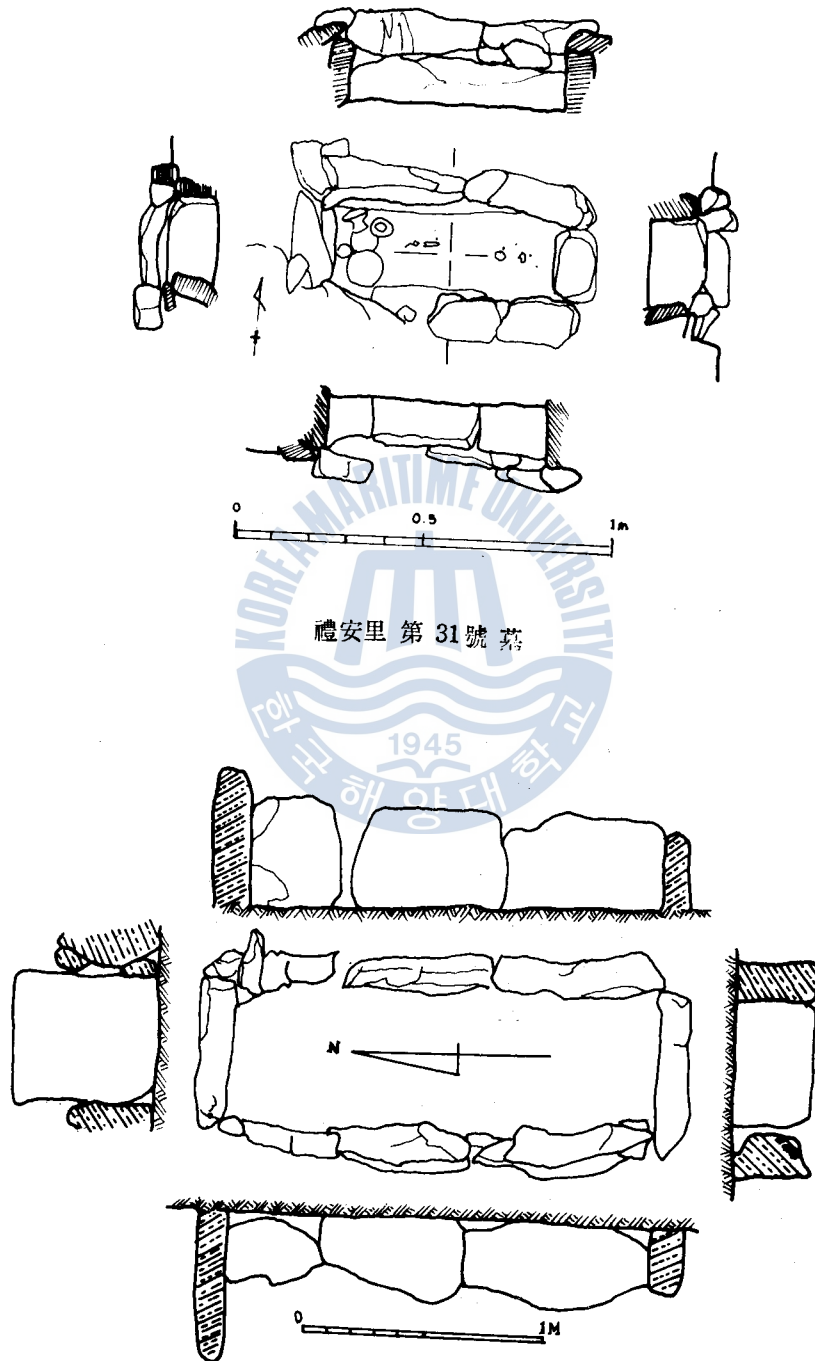
遺物配置상의 특징으로는 遺蹟이나 副葬品の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의 特色이 나타나 있다. 즉 禮安里古墳에서는 거의 모든 遺構에서 屍身の 발아랫쪽 지점에만 土器가 부장되어 있고 다른 遺蹟에서는 머리쪽과 발아랫쪽, 墓室의 兩短壁 2個지점에 부장되어 있다. 그리고 墓室內 兩地點에 土器의 부장처를 마련한 遺構에 있어서도 土器의 主부장처는 屍身の 발아랫쪽에 있다. 遺物의 종류에 따른 特色은, 土器의 경우 赤褐色軟質土器 高杯와 盃類, 灰青色硬質土器 高杯와 器臺類 등은 屍身の 머릿쪽에 부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壺類를 비롯한 대부분의 大形土器 등은 발아랫쪽에 부장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人骨이 殘存한 遺蹟은 禮安里古墳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이 遺蹟을 제외하고는 각 墓에 安置된 屍身の 數나 상태등이 불확실하였다. 그러나 人骨이 남아 있었던 禮安里 유적의 現狀이나 또 이들 竅穴式長方形石室墓가 그 構造상에 있어서 竅穴式인 점을 미루어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 墓는 모두 한 墓에 한 軀의 屍身만을 安置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單葬墓이다. 그리고 屍身을 安置할 때는 墓室 위에서부터 아래, 墓室內로 伸展仰臥상태로 安置하였다. 그리고 屍身の 枕向은 墓室의 長軸이 東西向인 墓는 東枕이나 南北向인 墓는 南枕과 北枕의 2個 枕向으로 유적에 따라 그 枕向을 달리하는 特色을 보여주고 있다. 즉 洛東江 東岸의 南北向인 墓는 南枕이며 西岸의 禮安里古墳 南北向인 墓는 北枕이다. 그러나 이러한 枕向문제는 이보다 앞선 時期의 墓制인 土壙墓의 枕向을 고려해 보면 東枕이 전통적인 枕向임을 알 수 있고 北枕과 南枕은 後來의 전통임을 알 수 있다.

諸種의 加耶墓制 가운데 竅穴式長方形石室墓의 編年的 位置를 提示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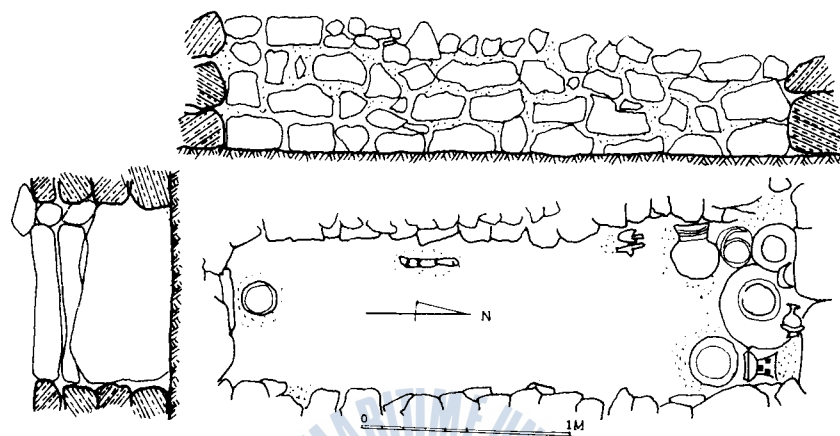
竅穴式長方形石室墓는 加耶墓制로서는 가장 先行한 土壙墓의 時期, 즉 加耶前期 以後에 流行하였다. 그리고 이들 竅穴式長方形石室墓는 小型墳으로부터 大型墳인 高塚古墳으로 발전하였으며 加耶中期의 主된 墓制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들 一回用 單葬의 竅穴式長方形石室墓는 加耶後期가 되면 追葬이 行해지는 家族墓의 등장으로 점점 소멸되고 加耶墓制는 이러한 追葬을 위한 새로운 墓制인 方形石室墓, 橫口式石室墓, 橫穴式石室墓로 發展되었다.

圖面 I 洛東江 下流域 長方形 石室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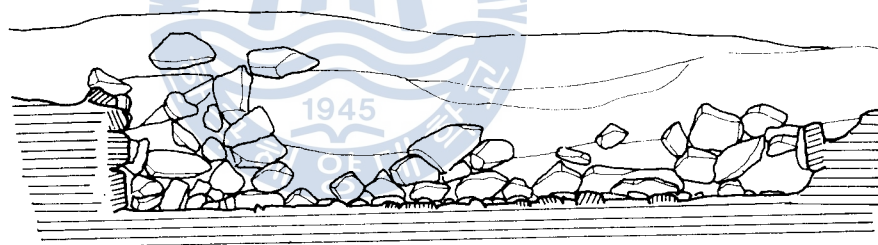


五倫台 第 12 號 墓

圖面Ⅰ 洛東江下流域 長方形石室墓



五倫台 第13號墓



華明洞 第2號墓

